

#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90호 (2020-21)  
 발행일 2020. 08. 26.  
 ISSN 2092-7117

발행인 조흥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T 044)287-8000 F 044)287-8052

##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수준에 대한 인식, 과연 OECD 국가에 비해 크게 부정적인가



신정우 정보통계연구실 통계개발연구센터장  
 김혜인 정보통계연구실 연구원  
 김희년 정보통계연구실 전문원

- 2020년 7월에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OECD Health Statistics)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양호 인지율(주관적 건강 수준)은 32.0%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음.
- 하지만 이는 기초 자료의 조사 환경이 OECD 국가와 같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국내 조사 중 다른 국가와 비교적 유사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국민의 73.4%가 건강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보고함.
- 국민이 인지하는 건강 수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보건의료제도 내에 숨겨진 과제를 발굴해야 함.

### 01. 시작하며

- ◆ 지난 7월 1일 발표된 OECD 보건 통계 정보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국민(15세 이상 인구)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sup>1)</sup>은 32.0%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음.
- OECD 국가에서는 10명 중 7명이 본인의 건강 수준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건강 양호 인지율, OECD 평균 67.9%).

1) OECD의 공식 수집 지표명은 건강 수준 인지(Perceived Health Status)임. OECD는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본인이 인식하는 건강 수준의 '양호( 좋음), 보통, 나쁨' 비율을 확인함. 이 중에서 '본인의 건강 수준이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인구 비율'이 국제적으로 비교되는 지표임.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를 '주관적 건강 수준'으로 명명해 왔으나, 이 글에서는 원어의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 양호 인지율'로 정의함.

- 건강 양호 인지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에스토니아(51.6%), 라트비아(46.9%), 리투아니아(44.0%), 일본(35.5%)임.
- ◆ 우리나라 국민은 기대 수명이 길고 주요 질환의 사망률이 대체로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sup>2)</sup> 스스로 인식하는 건강 수준이 과연 실제로 낮은 것인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2018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82.7년으로 OECD 평균(80.7년)에 비해 2년 길었음.
  - 연령표준화사망률<sup>3)</sup> 정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인구 10만 명당 암으로 160.1명, 뇌혈관 등 순환기계 질환으로 142.1명, 치매로 11.3명이 사망함(OECD 평균 각각 195.8명, 274.2명, 25.2명).
  -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아이의 숫자도 출생아 1천 명당 2.8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적은 편임(영아 사망률, OECD 평균 4.1명).
- ◆ 대체로 기대 수명이 긴 국가의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 수준이 양호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OECD 국가의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 있음(그림 1).
- ◆ 더욱이 두 나라가 '건강 위험 수준이 낮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건강 양호 인지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건강 위험<sup>4)</sup>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노르웨이, 스웨덴, 이스라엘은 기대 수명이 길고 건강 양호 인지율도 높은 편임.
  - 반대로 건강 위험이 높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는 기대 수명이 짧고 건강 양호 인지율도 낮은 편임.
  - 우리나라와 일본은 OECD 국가 중에서 건강 위험이 낮은 국가로 분류되는 가운데, 기대 수명이 긴데도 건강 양호 인지율은 낮은 것으로 확인됨.
- ◆ 신정우 외(2019)<sup>5)</sup>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다른 OECD 국가와 차이를 보이는 이유로 조사 방법의 차이, 국민의 사회문화적 관념을 꼽았음.
- ◆ 이를 배경으로 이 글에서는 OECD 국가의 '건강 양호 인지율' 지표의 출처와 산출 기준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OECD에 제공하는 수치를 국내의 다른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인식 수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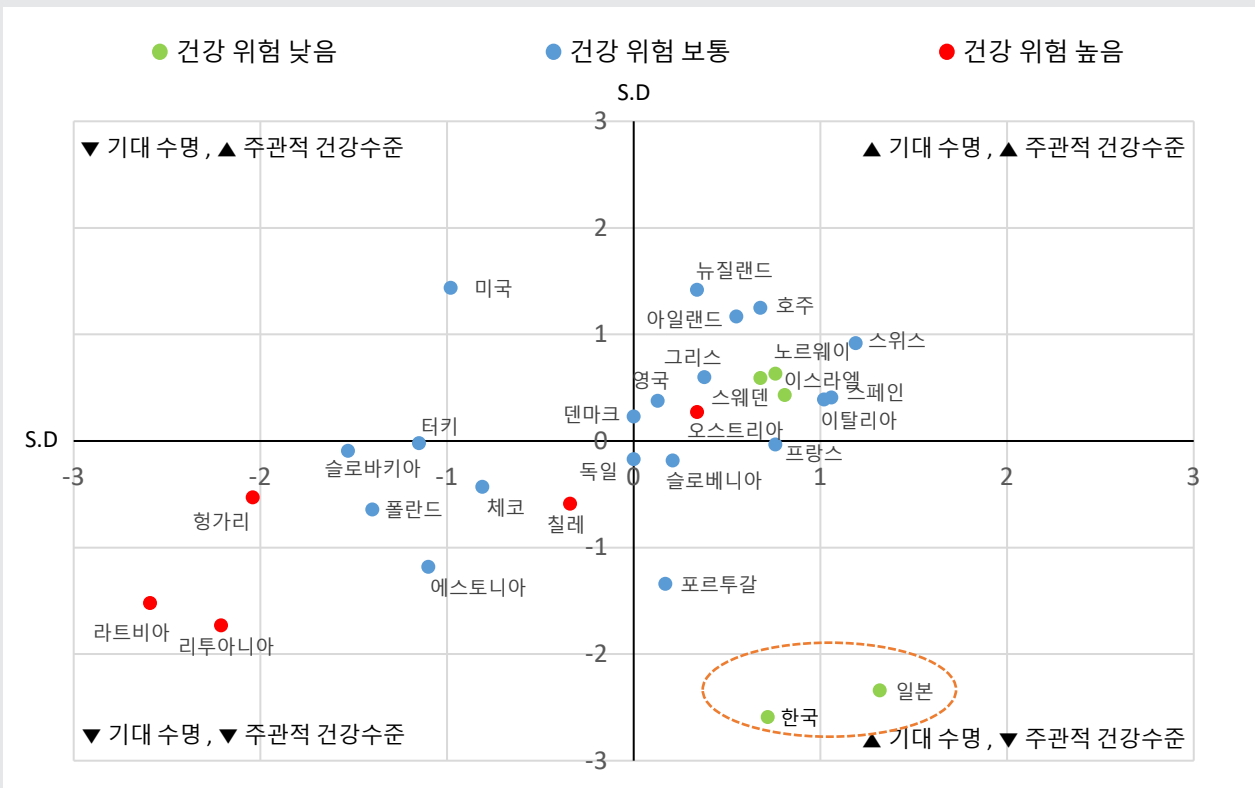
2) 보건복지부. (2020. 7. 23.). 우리나라의 기대수명, 의료장비 보유 수준 등 OECD 평균보다 높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3) OECD는 주요 질환의 사망 정보(사인별 사망률)를 국제기구 간 자료 공유로 수집함. 초기 수집 기관의 자료 검증으로 시간이 소요되는바, 이 정보는 기준 시점을 2017년으로 삼고 있음. 그리고 OECD가 발표하는 연령표준화사망률은 회원국 간 연령 구조의 차이를 보정한 것으로, 통계청이 제공하는 수치와 다름.

4) OECD(2019)는 흡연율(smoking), 주류 소비량(alcohol), 비만(obesity) 정보를 지표화하여 건강 위험 수준을 저위험(Low risk factors), 평균 수준 위험(Average risk factors), 고위험(High risk factors) 세 가지로 나눔. 지표 산출 과정에서 가중치는 적용하지 않음. 자료: OECD. (2019). Health at a glance 2019 pp. 34-37.

5) 신정우, 고경환, 천미경, 조형경, 신지영, 진재현. (2019). 2019년 OECD 등 국제기구통계 생산 및 관리. 세종: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1] OECD 국가 국민의 기대 수명과 건강 양호 인지율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20. <https://stats.oecd.org>에서 2020. 8. 18. 인출.

주1: 국가별 건강 위험 분류(낮음, 보통, 높음)는 『Health at a glance 2019』(OECD, 2019)의 pp. 34-37을 인용함.

주2: 기준 연도는 2018년임. 호주, 칠레는 2017년, 일본은 2016년도 자료임.

## 02. OECD 국가의 '건강 양호 인지율' 지표 출처와 산출 기준

◆ OECD가 제공하는 메타데이터(Sources and Methods)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가 국가 단위의 조사(National survey)를 통해 건강 양호 인지율 지표를 산출함.

-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26개 국가(터키 제외)는 ‘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EU-SILC)<sup>6)</sup>라는 표준 설문을 활용함.
- 호주, 칠레,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 미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표집된 가구에 조사원이 방문하여 설문하는 방식에 기초함.

.....

6) EU-SILC는 유럽연합에 소속한 국가들이 소득, 빈곤, 사회적 배제, 생활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시의성 있고 비교 가능성 있게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임. 건강 분야에 대해서는 건강 수준 관련 3개 항목과 미충족 의료(unmet needs) 관련 4개 항목을 조사함. 이 조사는 16세 이상의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짐. <https://ec.europa.eu/eurostat/web/microdata/european-union-statistics-on-income-and-living-conditions>에서 2020. 8. 19. 인출.

- 캐나다는 인구 집단에 따라 조사 방식을 구분하는데, 18세 이상인 경우 면접 설문과 전화 조사를 병행하고, 12~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전화 조사를 수행함.
  - 일본은 국민생활기초조사(國民生活基礎調査)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고 있는데, 이 조사에서 조사원은 가구에 방문하여 조사표를 배포, 회수(또는 우편 회수)하는 역할만 하고, 조사표 작성은 조사 대상자(가구원) 스스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OECD는 15세 이상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일부 국가는 OECD가 제시한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EU-SILC를 활용하는 유럽 국가는 16세 이상, 미국은 18세 이상, 이스라엘은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 대부분의 국가가 오지선다형 방식을 채택한 가운데 칠레만 예외적으로 선택지를 7개<sup>7)</sup> 두고 조사함.

〈표 1〉 OECD 국가의 '건강 양호 인지율' 지표 조사 방법과 대상 인구

		대상 인구	
		15세 이상 (OECD 작성 기준 충족)	기타 (OECD 작성 기준 미충족)
조사 방법	가구 방문	호주, 캐나다, 칠레,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이상 EU-SILC 도구 활용), 미국, 이스라엘
	전화 조사	캐나다	-
	기타	한국	-

자료: OECD가 제공하는 'Definitions, Sources and Methods'(https://stats.oecd.org에서 2020. 8. 18. 인출)에 기초하되, 각 국가의 조사 정보(원자료)를 점검하여 작성함.

- 주: 1) 콜롬비아는 수치를 제공하지 않아 자료 출처가 없음.  
 2) 캐나다의 경우 면접 조사와 전화 조사를 병행함.  
 3) 한국은 조사 대상자가 이동 검진 차량을 방문하여 설문에 참여함.

### 03. 건강 수준 인지에 관한 국내 조사 현황

- ◆ 우리나라는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sup>8)</sup>에 기초하여 해당 지표를 산출, OECD에 제공함.
-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하며, 국민의 건강 수준, 건강 행태, 영양 상태 등을 확인하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 보건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7) 선택지를 'Very bad'(1)부터 'Very good'(7)까지 7개로 구성함.

8)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8). 2018 국민건강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조사 대상자는 이동 검진 차량을 방문하여 건강검진(혈압 측정, 신체 계측, 폐 기능 검사, 근력 측정, 구강 검사, 채혈 및 채뇨, 눈 검사, 이비인후 검사)을 한 후, 건강 수준에 대한 인식 수준을 답함.
- ◆ 질병관리본부는 OECD가 요청하는 정의에 따라 15세 이상 인구의 건강 인지 수준을 양호(Good/very good health), 보통(Fair: not good, not bad), 나쁨(Bad/very bad health)으로 제시함.
  - 응답자는 “평소에 ○○○님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다섯 가지 응답 중에서 하나를 선택함.
  - 선택지 중 ‘매우 좋음’과 ‘좋음’은 양호로, ‘보통’은 보통으로, ‘나쁨’과 ‘매우 나쁨’은 나쁨으로 분류하여 OECD 제공 통계를 작성함.
- ◆ 한편, 국내에서 수행되는 여러 조사에서 건강 수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묻고 있는 가운데(오지선다형), 이들 조사는 모두 조사원의 가구 방문을 통해 설문이 이루어짐.
  - 국민 생활의 전반적인 현황과 인식 변화를 조사하는 사회조사<sup>9)</sup>의 경우,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하되 일부 대상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조사에 참여함.
  - 복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한국복지패널은 전국 약 7000가구로 구성된 패널(panel)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원의 가구 방문과 전화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가장 최근에 도입된 의료서비스경험조사<sup>10)</sup>는 전국 6000가구(2018년 기준 약 1만 3천 명)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인식 등과 함께 건강 수준에 대한 인식을 점검함.
  - <표 2>에 제시한 것 외에 한국의료패널<sup>11)</sup>에서도 건강 수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확인하고 있음.

9) 통계청. (2018). 2018년 사회조사보고서. 대전: 통계청.

10) 신정우, 조병희, 최보람, 신지영, 천미경, 이유진. (2018). 2018년도 의료서비스경험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 한국의료패널은 2020년 8월 현재 2017년 조사 결과를 최신 정보로 하고 있어 검토 대상에서 제외함. 더욱이 이 조사에서는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당 문항을 묻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어려움.

〈표 2〉 건강 수준 인지에 관한 국내 주요 조사 현황(2018년 기준)

구분	조사 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사회조사	한국복지패널	의료서비스경험조사
조사 시작 연도	1998년	1977년	2006년	2017년
주관 기관	질병관리본부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방법	이동 검진 차량, 검진 및 건강 설문 면접	가구 방문, 면접 조사(일부 인터넷 조사)	가구 방문, 면접 조사(일부 전화 조사)	가구 방문, 면접 조사
조사 규모	1만 3천 가구	약 2만 6천 가구	7천 가구	6천 가구
조사 대상	만 1세 이상	만 13세 이상	만 15세 이상	만 15세 이상
설문 문구	평소에 ○○○님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건강에 대하여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귀하의 건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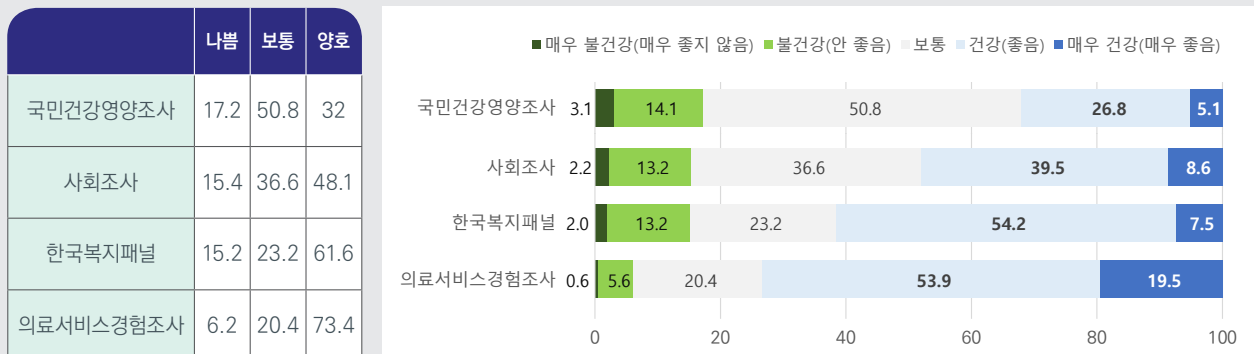
주: 1) 사회조사는 10개 부문을 두 개로 나누어 2년 주기로 조사를 수행함. 짝수 연도에는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 부문이, 홀수 연도에는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부문이 조사됨.

◆ 위 조사의 응답 경향을 분석한 결과, 15세 이상 인구의 건강 양호(매우 좋음, 좋음) 인지율은 국민건강영양조사가 32.0%로 가장 낮았고, 의료서비스경험조사가 73.4%로 가장 높았음(그림 2).

- 한국복지패널은 61.6%, 사회조사에서는 48.1%가 건강 수준이 양호하다고 응답함.
- 한편, '보통'을 선택한 비율은 국민건강영양조사가 50.8%로 매우 높았으며, 사회조사 36.6%, 한국복지패널 23.2%, 의료서비스경험조사 20.4% 순으로 확인됨.

[그림 2] 조사별 건강 인지 수준(15세 이상)

(단위: %)



## 04. 나가며

- ◆ 우리나라 국민 스스로 인식하는 건강 수준(건강 양호 인지율)은 최근 몇 년간 OECD 보건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최하위라는 평가를 받아 옴.<sup>12)</sup>
- ◆ 하지만 이는 조사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국가 간 비교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 아닌 것으로 판단함.
- ◆ OECD 통계는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이 중요한데, 현재 자료원인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조사 환경이 OECD 국가와 차이가 있음.
  -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는 가구 방문에 기초한 면접 조사를 통해 건강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특수 환경(조사 대상자가 이동형 검진 차량을 방문)에서 건강검진과 병행하여 해당 정보를 수집함.
  - 일본의 경우, 우리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조사표를 배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서 면접(interview)에 의해 자료가 수집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한편, 유럽 26개 국가는 16세 이상, 미국은 18세 이상, 이스라엘은 20세 이상을 조사하고 있는바, OECD가 요청한 인구 집단(15세 이상)에 대한 통계 작성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국제 비교의 한계를 남김.
- ◆ 즉, 현재 OECD 발행물을 중심으로 널리 인용되고 있는 건강 양호 인지율 32.0%(2018년 기준)는 수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 간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 제약이 있음.
  -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혈압 측정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실제로 확인하는 것에서 조사의 가치를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응답자의 건강 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엿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하지만 여기에서 확인된 건강 양호 인지율 정보를 국제 비교의 자리에 내세워 우리나라 국민의 일반적 상황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국내 여러 조사 중에서 다른 국가와 조사 환경이 유사하고 OECD가 요청하는 형태로 자료 산출이 가능한<sup>13)</sup>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양호 인지율은 73.4%로 결코 OECD 국가에 뒤지지 않음.

12) 김영선. (2020. 7. 22.). 기대수명 최고 수준인데... "나는 건강하다" OECD 최하위.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828389&code=61121111&cp=nv>에서 2020. 8. 19. 인출.  
 최용준. (2019. 7. 21.). [OECD 보건통계①] 한국 본인 건강하다는 생각 '꼴찌'.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1907211135364860>에서 2020. 8. 19. 인출.  
 홍준기. (2018. 7. 13.). 한국인의 건강 염려증...OECD 평균보다 양호한데, 3명중 2명 "건강안좋아".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3/2018071300273.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3/2018071300273.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에서 2020. 8. 19. 인출.

13) OECD는 현재 '건강 수준 인지' 지표를 매년 성,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수준에 따라 제공할 것을 요청함. OECD 회원국이 이러한 요청에 따라 일반 가구 면접 조사 정보에 기초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조사(격년)는 작성 주기 측면에서, 한국복지패널(패널 가구 대상)은 표집 방식 측면에서 다른 국가와 차이를 보임.

- ◆ 그동안 겉으로 드러난 이 수치만 보고 '우리나라 국민은 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받아들여 왔지만, 과연 이 수치가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을 대표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에 기인한 문제인지를 살펴보는 노력이 뒤따랐으면 함.
- ◆ 이를 국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 따른 결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건강 수준 인지에 관한 국내 다른 조사에서 확인된 응답 분포를 보면 이러한 이유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임.
  - 앞서 살펴본 네 개의 국내 조사에서 건강이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2.0%에서 73.4%까지 큰 차이를 보임.
  - 이러한 차이는 각 조사의 조사 환경, 문항 배치, 설문 문구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판단함.
- ◆ 국민이 인지하는 건강 수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를 국민의 의료이용량, 건강 행태와 비교하여 살펴보는 등 보건의료제도 내에 숨겨진 과제를 발굴하는 데 활용해야 함.

집필 신정우(정보통계연구실 통계개발연구센터장), 김혜인(정보통계연구실 연구원), 김희년(정보통계연구실 전문원) 문의 044-287-8391